

대동모빌리티, 골프카트 고급화 주도… 日 등 신시장 공략

일반·리무진카트 국내시장 안착
내년 역대 최대 판매목표 설정
연내 日 출시… 美 진출 계획도



리무진 골프카트.

/대동모빌리티

대동그룹 계열 대동모빌리티가 리무진카트로 국내 골프 카트시장의 고급화를 주도하며 시장 공략을 더욱 가속화한다. 특히 올해 말에는 일본향 맞춤형 골프카트를 추가 출시해 야마하(YAMAHA)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일본 본토 시장에서 활동반경을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다.

22일 대동모빌리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7월 리무진 골프카트를 처음 선보인 이후 올해 4월에는 성능을 더욱 개선한 신형 모델을 추가로 출시했다. 신형

리무진 골프카트는 현재까지 누적으로 100대 이상을 판매하며 안착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있는

530여개 골프장은 약 4만3000대의 골프카트(일반카트 기준)를 운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규 교체 등으로 인한 연간

시장 규모는 3000대 가량에 이른다.

고급 승용차 1대 가격과 맞먹는 리무진카트의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50대 수준이다.

대동모빌리티 모빌리티사업본부 문준호 본부장(상무)은 “국내 일반 카트시장의 경우 대동모빌리티와 야마하, 에이프로가 약 90%의 점유율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새로 출시한 리무진카트는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동모빌리티는 내년에만 국내에서 1100대의 판매 목표(일반+리무진)를 세웠다. ‘연 1000대 이상 판매’는 대동모빌리티가 관련 사업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목표치다.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한다. 특히

골프장만 약 2500개로 글로벌 3위인 일본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대동모빌리티 최근영 사업부장은 “지난 7월부터 일본 주요 골프장 10곳 이상에 제품을 공급하며 현지 반응을 살피고 있다”면서 “11월에는 현지 맞춤형 골프카트를 정식으로 출시한다. 해당 모델은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전자유도 주행을 지원하는 범용 센서를 탑재했고 내장형 에어컨, 광폭 타이어 등 현지화 사양도 다양하게 반영했다”고 전했다. 일본에선 2030년까지 연간 1000대 판매를 목표하고 있다.

대동모빌리티는 장기적으로는 골프카트 수요만 연간 약 35만대에 달하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이동채 “친환경 이차전지 선도기업 도약”

(에코프로 창업주)

에코프로 창립 27주년 기념식

도전정신 바탕 확장 비전 제시
이 창업주 “혁신의 역사 만들 것”

에코프로가 창립 27주년을 맞아 창업 초기의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22일 충북 오창 본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지난 27년이 ‘도전과 개척의 역사’였다면 앞으로의 27년은 ‘혁신과 글로벌 리더십의 역사’가 될 것”이라며 “세계가 인정하는 친환경 이차전지 선도기업으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솔라웨이섬 I MIP(모로알리 산업단지) 내 제련소 투자와 헝가리 양극재 공장 가동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QMB·메이밍·ESG·그린에코니켈 등 4개 제련소에 약 7000억원을 투자하며 니켈 중간재(MHP) 조달 능력을 확보했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창립 27주년을 맞아 충북 오창 본사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에코프로

고, 제련소 자회사 편입 등을 통해 연간 1800억원 수준의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IGIP(인터내셔널 그린 산업단지)에서는 PT 발레 인도네시아 등과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에코프로비엠이 헝가리 데브레첸에 구축한 유럽 최초 한국계 양극재 공장은 시험 가동에 돌입했다.

이 창업주는 “서울 서초동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한 명의 직원과 시작한 에

코프로가 이제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도전의 에너지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7년 교토의정서 체결을 계기로 환경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하고 1998년 에코프로를 설립했다. 주차장 컨테이너를 연구실로 활용하며 부직포와 접착제를 이용한 케미컬필터 실험을 반복하는 등 사업 초기의 ‘무모한 도전’은 나노카본 탈취제 상용화, 케미컬필터·온실가스 저감장치 국산화 성과로 이어졌다. 2004년 제일모직과 이차전지용 양극소재 개발에 참여하며 이차전지 산업에 본격 진입했고 2013년 일본 소니에 양극재를 공급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 창업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은 우리만의 기술력 확보”라며 초격차 기술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원가 경쟁력을 가져야만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LS전선, 차세대 해저 원유 이송기술 개발

딥오션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 협력

LS전선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차세대 해저 원유 이송 기술 개발에 나선다.

LS전선은 노르웨이의 딥오션(Deep Ocean), 에퀴노르(Equinor), 아커BP(Aker BP), 프랑스의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 등과 함께 ‘전기 가열식 해저파이프라인(FlowHeat)’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술은 기존 외부 열선 방식이 아닌, 파이프라인 내부에 히팅 케이블(열선)을 삽입해 바다속 저온에서도 원유가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심해 유전 개발의 새로운 표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LS전선은 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히팅 케이블을 개발해 오는 2028년부터 단독으로 양산, 공급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극저온과 고수압 등 극한 해양환경

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실증 시험을 통해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케이블 삽입식은 설치가 단순하고 효율이 높아 비용을 약 35% 절감하고 탄소 배출을 30% 줄이고 시공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최대 수심 3000m, 길이 30km 구간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소형 무인잠수정(ROV)을 활용해 케이블 구축이 가능하다.

해양 엔지니어링 기업 딥오션이 총괄을 맡고, 에퀴노르·아커BP·토탈에너지스가 실증 파트너로 참여해 북해 등 심해 유전 현장에서 기술 검증을 진행한다.

LS전선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LS전선의 장거리 케이블 기술력과 글로벌 공급망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전력·통신 중심의 사업을 가스·오일 분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고려아연, 호주 BESS·태양광 개발… ‘트로이카 드라이브’ 탄력

최윤범 대표 신성장 동력 본궤도

최윤범 회장(사진)이 추구해 온 신성장 동력 ‘트로이카 드라이브(신재생에너지·이차전지소재·자원순환)’ 프로젝트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인 아크에너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에너지저장 시스템(BESS)과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의 개발 계획 승인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려아연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서 핵심축을 담당할 전망이다. 아크에너지가 구축하는 BESS는 리튬인산철(LFP) 기반으로 전력 용량 275MW(메가와트) 규모다. 8시간 동안 최대 2200MWh(메가와트시)의 에너지를 충·방전할 수 있다. 시설을 본격 가동하



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거주하는 약 17만5000가구에 매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BESS와 함께 200MW급 태양광 발전소도 건설한다. 이 발전소를 가동하면 연간 37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특히 고려아연은 건설과 운영뿐 아니라 소유권까지 갖는 방식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해당 프로젝트의 전체 투자비 약 11억 호주 달러(약 1조원) 가운데 52%를 구성하는 핵심 자재인 배터리는 환화에너지가 공급한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장기 에너지 서비스 계약의 최종 사업자로 아크에너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아크에너지는 시설 운영을 시작한 시점부터 14년간 주정부 지정 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보조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최주원 아크에너지 대표는 “리치몬드 밸리 프로젝트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정부의 심사 과정 전반에서 의견을 제시해준 지역사회 구성원을 비롯해 아크에너지가 뜻깊은 이정표에 도달하도록 지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리치몬드밸리 프로젝트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란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한국과 호주 양국민이 협력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KT, UAM 실증사업자 자격 획득

(도심항공교통)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

KT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자격 부여로 KT는 UAM 상용화 추진을 위한 핵심 사업자로 공식 인정받게 됐다.

KT는 지난해 전남 고흥에서 열린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에서 통합 운용성과 비행 안전성, 관제 시스템 연동 등 핵심 기술을 검증했다. 이후 UAM 특별법이 요구하는 장비와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운영 역량을 인정받아 실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

KT는 이번 자격을 기반으로 10월 말부터 인천 계양~청라를 잇는 아라뱃길 구간에서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을 진행한다.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등과 함께 ‘K-UAM 원팀’으로 참여한다.

이번 실증에서는 5G 항공망을 기반으로 한 운용 시스템의 통합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통신 장애, GPS 신호 불안정, 기상 악화, 기체 이상 등 다양한 돌발 상황을 가정해, 교통관리체계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 또 기존 음성 기반 비행 허가 절차를 자동화된 데이터 통신 방식으로 전환해 고밀도 운항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운용 체계를 실증한다.

또한 KT는 5G 항공망 기반 초정밀측위기술(RTK-GNSS)을 기존 항공감시체계(ADS-B, MLAT)와 연계해 비행력 비행체나 GPS 두절 상황에서도 저고도 공역을 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시정보, 기상, 비행계획 등 운항 데이터를 관계 기관과 실시간 공유하는 통합 정보교환 시스템도 함께 시험한다.

KT는 이번 실증을 통해 5G 기반 항공망 기술과 교통관리 시스템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UAM 상용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